

Joyful Worldcup

- 축제 그 열정과 환희 -

박정연
의류학 전공('02 졸업)

I. 서론

2002년 한·일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이다. 이러한 월드컵을 주제로 축제의 열광과 정열, 기쁨과 희열 등을 테마로 잡아 디자인한 작품을 설명하고자 한다.

패션이란 키워드를 통해 월드컵의 축제의 현장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설명에 앞서, 2002년 패션의 트렌드와 시장 전망을 예측하여 작품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 디자인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본 설명은 2002년의 유행전망과 시장전망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 설명에 들어가 고자 함이다.

II. 본론

1. 2002년 트렌드 예측 및 시장 전망

2002년 패션시장의 성장 전망은 상반기가 지난 이후 조심스런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경기의 불확실성,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 유통채널의 다각화' 등을 키워드로 들 수 있다.



또한 2002년 북중별 의류시장의 흐름에서는 캐주얼 시장이 주도를 유지할 것이며, 월드컵 특수에 의한 스포츠웨어의 소폭 상승, 신상품 개발과 캐주얼과의 코디를 위한 겨울 의류 시장 상승 등이 예상된다.

히피 혹은 보헤미안처럼, ‘자유로움’과 ‘부드러움’이 패션의 새 화두로 등장한다.

개성이 어떤 패션법칙보다도 앞섰던 히피스타일, 풍성하고 부드러운 블라우스와 이국적인 무늬와 장식 등이 어우러진 에스닉이 풍미하던 70년대 패션스타일이 전면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히피스타일을 이뤘던 요소는 꽃자수와 구슬로 장식된 헐렁한 셔츠, 아프간스타일 재킷, 나팔바지라 불리던 벨보텀팬츠 등이 그것이다. 기존 사회질서에 반항하는 이들은 최신유행에 대항하는 ‘안티모드’의 중심으로 낡은 옷을 제시하고도 한다.

올해 열린 각종 2002년 S/S 컬렉션에서도 70년대의 히피 혹은 보헤미안 스타일이 무대를 휩쓸었다.

화려한 원색의 꽃프린트, 치렁치렁한 플레어스커트, 자수 술장식 코사지, 굵고 장식적인 벨트, 낡은 진, 잔주름이 잡힌 풍성한 블라우스, 부드러운 옷의 겹쳐입기, 손뜨개니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러플과 프릴 레이스 등이 클로에, 블루마린, 루이비통, 로베르토 카발리 등의 패션쇼에서 관객을 사로잡았다.

올 봄에 유행할 70년대풍은 유럽 스타일로 정돈되고 고급스러워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피스티케이티드 히피, 럭셔리 히피로도 지칭하고 있다.

2. Fabric & Color

최근 여성복 분야에서 기능성 소재가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구사한 쾌적성 소재와 보다 스포티한 소재들이 여성용 소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2년 추동용 소재로는 자연적이고, 고급스럽고, 새로운 기본품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본소재라 할지라도 보다 고품질의 자연적인 외관을 중시하고 있다.

파리의 빠르미에르비종이나 밀라노 모다인의 2002 추동소재전에서 나타난 트렌드는 「양극의 공존」이며 도쿄의 소재전에서도 정반대의 감각이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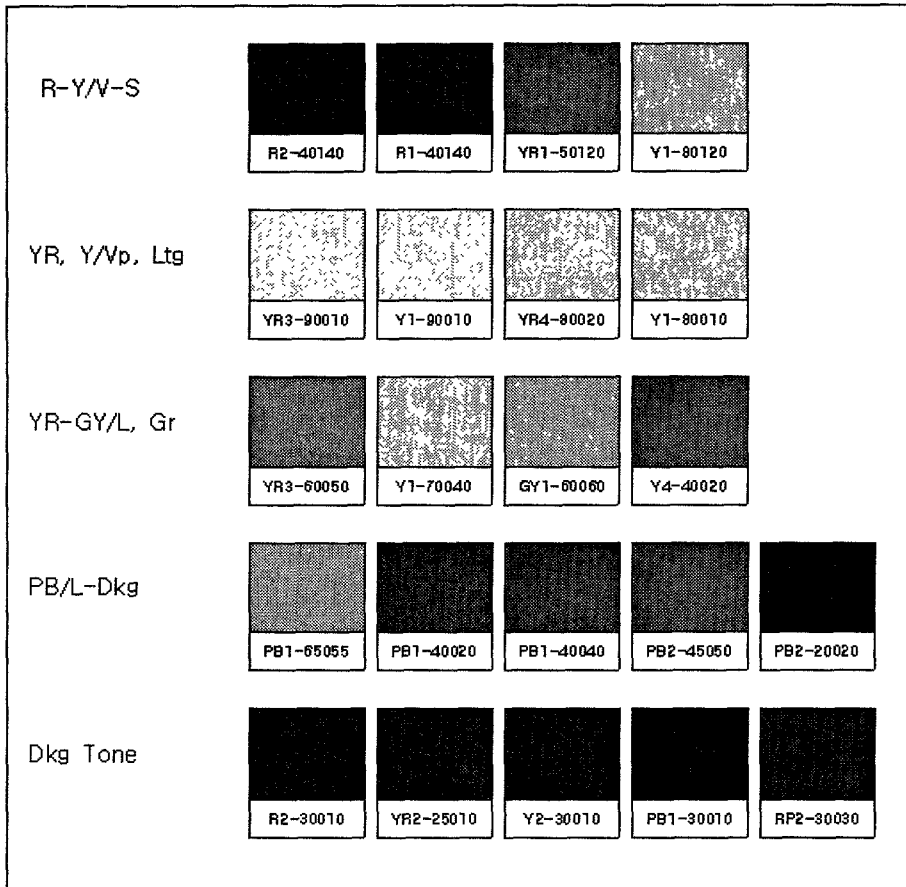
예를 들면 빈태이지나 트레디셔널을 하이테크로 연출하거나 고급감과 캐주얼감,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메트와 브라이트와 같이 대조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천연섬유뿐만 아니라 합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화섬소재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합섬메이커들의 소재전에서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들을 조화시킨 「대비의 매력」을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글로벌과 로칼, IT혁명과 구조조정의 아픔, 빈·부의 격차등 미묘한 밸런스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올마크디자인 인터내셔널이 제안하는 2003년 트렌드인 「벨런스」도 부드러움과 딱딱함, 가벼움과 볼륨감 이라는 동적인 대조와 극대 극의 밸런스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한편으로는 2002년 추동은 99년 춘하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99년 춘하에 스포츠이미지가 크게 유행하여 합섬이나 면코팅 소재가 각광을 받았으며 그 후 포크로아(99 추동), 페미닌(2000춘하)으로 이어져 트렌드가 극대 극의 엘리건트컨셉을 타나냈고 2000년 추동의 엘리건스로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후 면프린트나 개버딘 캐주얼이 움직였고(2001춘하) 더욱이 후라노, 트위드, 콤팩트저지의 남성적인 페미닌(2001추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2002년 춘하는 고품질의 코튼, 싼머울 등의 클린 캐주얼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성과 아방가르드성이 보다 추가된 것이 2002년 추동의 흐름이며 현대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와 아방가르드적인 로맨틱 이미지의 2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작품 설명

지금까지 발표된 컬렉션과 자료를 바탕으로 trend와 상품성을 동시에 검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고자 하였다.

i. 작품에 대한 컨셉 설명 및 소재 설명

* 제목 - 'JOYFUL WORLDCUP'

* 부제 - '축제, 그 환희와 열정'

* 테마 :

세계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인 월드컵이 2002년 한·일 공동 주최로 개최되게 되었다. 이러한 월드컵과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그 축제의 자리를 생각코자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수용하고, '월드컵의 영광'을 패션으로 승화시켜 나타내고자 한다.

* 컨셉 - 세계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인 월드컵을 생각하며, 그 때의 영광을 생각해본다. 월드컵의 그 뜨거운 열기와 환희를 'SPORTIVE & CUTE'한 이 미지로 재미있게 표현해보고자 한다.

* 컬러 - MAIN COLOR: 화이트 & 레드

POINT COLOR: 블랙, 블루, 그린, 옐로우 등

ii. 디자인 설명

1. 자켓 - 변형된 블루중 스타일의 자켓이다. 목선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패딩시 킨후, 가죽소재를 이용하여, 소매끝단과 칼라부분에, 밴드 장식선을 얻은 디자인, 입술 포켓으로,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포켓 가장자리에 주름장식을 이용하여 강조점을 두었다.

* 소재: 코튼과 레이온 혼방지(패딩)

* 컬러: 화이트

2. 스커트 - 기본적인 A라인 스커트를 변형시켜, 힙 라인까지 커팅하고, 12폭으로 절개하여, 다른 색상의 스프라이트 무늬를 이용하여, 변화감을 준다.

힙라인에서, 무릎길이정도까지는 사선으로 색상별로 절개하여, 재봉한후, 위에 같은소재의 끈으로 주름장식을 잡아, 변화감으로 준다.

이는 축제의 열정과 환희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축제때의 꽃 가루와, 폭죽에서 이미지를 얻었다.

햄라인은 불규칙하게 커팅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 디자인을 하였다.

* 소재 - 공단

* 컬러 - 레드, 블루, 그린, 바이올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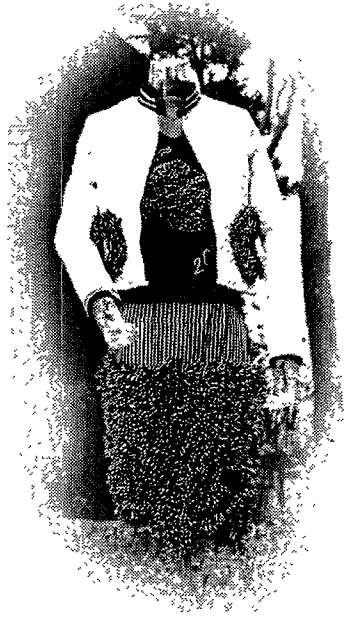
* 무늬 - 스프라이트 무늬

3. 슬리브리스 - V라인 네크라인에 슬리브리스로, 가슴 중앙에, 축구공 문양의 장식을 블랙 가죽을 이용하여, 장식한 뒤, 그 위에 주름 장식과, 블랙 가죽 엔 스티치를 넣어, 월드컵 이미지를 전하고자 한 디자인이다. 상단과 하단에, 화려한 큐빅을 이용하여 '2002~~'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 소재 - 면스판

* 컬러 - 레드

iii. 작품 사진



III. 결 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열광적인 축제의 이미지를 의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독창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전하면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인종의 세계인들의 이미지를, 다채로운 컬러를 포인트로 이용하여, 세계인들의 융화와 화합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참고자료>: 삼성 패션 연구소